

10년 적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소송 결론 났다

전주지법, 장기미제사건 처리 위해 재판부 새로 구성... 반환 소송 4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전주지법이 10년간 적체됐던 장기 미제 민사 사건을 처리했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김선영)는 접수된 지 약 10년이 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1300명에 달하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을 상대로 "분양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난 2012년 전주시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자 모집 공고를 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승인이 나자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분양가는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 제기 이후 약 1300명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분양전환자격 존부와 그 증명책임, 부당이득액에 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지속됐지만 소송이 이어지는 중 원고들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판결이 10년 넘게 지연돼 왔다.

이에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제11민사부를 새롭게 구성해 재판을 이어왔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소를 제기한 원고(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대상자 자격 여부 판단 △정당한 분양가격의 책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 당시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무주택' 요건과 '계속

거주' 요건을 바탕으로 수많은 임차인들 중 우선분양전환대상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추려냈다.

이후 건축 당시 비용과 이자, 감가상각비, 택지비 등을 모두 고려해 해당주택의 정당한 분양전환가를 책정했다.

법원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원고들이 피고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를 초과한다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이들에게 초과한 분양가 만큼의 부당이득액과 함께 소송으로 지연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뉴시스



전북외식산업(대표 강철)은 7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취약계층 아동 위한 따뜻한 나눔

전북외식산업, 전주시청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전북외식산업(대표 강철)은 7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북외식산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소재한 식품 제조기업체로,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전주시복지재단의 희망찬사로 가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철 전북외식산업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나눔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전북외식산업 강철 대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후원해 주신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중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이연상 제7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 앞장설 것"

이연상 전 부안군 부군수가 제7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이연상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상 신임 이사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신바람 나는 시설공단, 임직원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시설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마일버스 정비소 등 공단 시설장 현장점검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돌

입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3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왔으며, 이연상 신임 이사장이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종 임명됐다.

한편 이연상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해 34년간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전주시 보건행정과장과 전라북도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이연상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주덕진소방서, 숙박시설 화재 대비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7일 덕진구 산정동에 소재한 숙박시설인 테라호텔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공기안전매트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 및 초기대응능력을 강화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굴절·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 약 20m높이에서 마케팅을 떨어뜨려 안전한 착륙위치를 파악



하고 반발력 등을 확인해 구조대상자가 안전한 위치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훈련내용은 △공기안전매트 훈

련 목적 설명 △매트 상태 점검 △공기안전매트 제원 확인 및 전개 시엔 △안전한 공기안전매트 전개 위치 파악 △공기안전매트 신속 전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상황별 대응 및 인명구조용 마케팅을 이용한 낙하연습 △훈련 후 대원들의 훈련 평가 및 피드백 등 현장대책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대원들이 공기안전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숙달훈련을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안전교육을 통해 공기안전매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시 대처법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평화1동발전협의회, '10월의 멋진날 작은 음악회' 개최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발전협의회(회장 이규영)가 오는 10일 평화동 소재 학산요양병원 부근 체련공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제2회 10월의 멋진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음악 공연이 학산 아래 가을 정취와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10월의 멋진날 작은 음악회'는 평화1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화1동 소재 호남A마트, 분침치, 김밥나라, 산마을오리정, 신세계7080이 후원했다.

공연으로는 꽃바람 여인 조수근, Jtc 히든싱어 김영남, Jtc 풍류대장 임재

현, 대세걸그룹 레이디티 등이 출연한다.

이규영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음악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미영 평화1동장은 "음악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화1동발전협의회는 평소 지역 어린이 문화체험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 지역 어르신을 위한 영양삼계탕 나눔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오고 있는 단체이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이맛이 청정리거다!

리얼탄산100% 청정맥아100%

청정리거-테라 TERRA FROM AGM